

## 강아지 '달이'의 주연 영화



# 마음이...

김영철 (수원하이펫동물병원) / 영화<마음이...>명예홍보대사

우연한 기회에 지인의 소개로 한국영화 사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강아지 주연 영화인 <마음이...>의 주인공인 마음이(본명:달이/래브라도리트리버/4살/암)의 건강을 돌보면서 이 영화의 촬영과정을 지켜보게 되었고, 드디어 10월 26일 개봉을 앞두게 되었다.

“나, 고백할게 있는데... 사실은 너 훔쳐왔어...”

11살 나이답지 않게듬직한 소년 찬이, 그리고 찬이의 6살배기 뼈쟁이 여동생 소이...

이렇게 두 오누이는 집을 나간 엄마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살고 있다.

어느 날 찬이는 강아지를 갖고 싶어 뼈쓰는 소이를 위해 생일선물로 어린 강아지 한 마리를 훔쳐온다. 소이는 엄마가 자기의 마음을 알고 보내준 것 같다며 강아지 이름을 '마음이'라고 짓는다. 그렇게 세 식구가 된 찬이, 소이, 마음이는 그 어느 때 보다 행복한 한때를 보내게 된다.

“소이를 잃게 된 게 다 너 때문이라 생각했어...”

어느덧 1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마음이는 찬이가 없을 때 소이를 친구처럼 오빠처럼 돌볼 만큼 큰 늄름한 개가 된다. 그해 겨울 꽁꽁 언 강변에서 추위와 배고픔을 잊은 채 신나게 썰매를 타던 세(?)남매에게 예기치 못한 불행이 찾아온다. 살얼음이 깨지면서 소이가 물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렇게 소이를 잃게 된 찬이는 그 모든 것이 마음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무섭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엄마도 떠나고 소이도 떠난 그 집이 싫어진 찬이...

소이의 유품인 분홍색 책가방을 챙겨 메고 찬이도 어디론가 떠난다.

홀로 남겨진 마음이는 찬이를 찾아 나서는데... 과연 마음이는 찬이를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찬이는 마음이의 진심을 알게 될까?

소문난 애견가로 알려진 제작자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마음이...〉는 우리 수의계에서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Human-Animal Bond'의 진면목이 담긴 사람과 동물과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제작진의 열정과 애정이 담긴 남다른 작품이다. 여기에 2005년 시각장애인과 안내견 '토람이'의 감동스토리로 호평 받은〈내 사랑 토람이〉를 제작한 SBS프로덕션의 공동제작을 맡아 작품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

성깔 있고 고집 센 뚝심소년 주인공 '찬이'의 역으로는 2002년 〈집으로...〉의 유승호 군이 아역답지 않은 열연으로 2006년 가장 기대되는 배우로 각광받고 있고, 찬이의 폐쟁이 못 말리는 동생 '소이' 역에는 CF스타 김향기 양이 깜찍한 연기로 주인공인 마음이 역으로는 래브라도리트리버 '달이' 가 사람 못지않은 놀라운 연기를 보여준다.

세상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상처 받은 소년과 그를 지키기 위해 세상 끝까지 따라가는 동물이 나누는 진실한 우정을 담은 이 영화는 〈집으로...〉의 아역티를 완전히 벗은 유승호의 성숙된 연기와 각종 훈련대회의 수상 경력이 화려한 베테랑답게 사람도 힘든 촬영 스케줄을 완벽히 소화하며 몸을 사리지 않는 혼신의 연기 투혼을 보여준 국내 최초의 연기 견(犬) '달이'. 그들의 탁월한 감성 연기와 마음까지 교감하는 뛰어난 연기호흡으로 온 국민의 눈물샘을 자극할 〈마음이...〉는 한 소년과 강아지의 따뜻한 만남과 아픈 이별, 그리고 가슴 찡한 재회의 과정을 통해 사람과 사람사이 그 이상의 속 깊은 우정과 진실한 사랑의 교감을 한국적 감성에 맞게 담아낸 작품이다.





흥행만을 위한 자극적이고 폭력적이며 허무맹랑한 코미디물이 대부분인 요즘 극장가에 모처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동물영화〈마음이...〉가 각박한 현실에서 메말라 있던 관객들의 숨어 있는 감성을 깨우며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벅찬 감동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동물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와,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미비한 지금의 우리 수의계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런 영화들이 많은 관객을 동원하고 동물과 사람사이에 진솔한 사랑이 관객들의 가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더불어,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이 동물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올바른 마음을 갖게 하는 효과와 조기교육의 일환으로도 어린이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추천이 필요한 영화라고 생각한다.

순수한 열정과 애정으로 인간과 동물사랑을 아름답게 그려낸〈마음이...〉의 제작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의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받아 더욱 영광으로 생각하며 때마침 한국동물병원협의회 강종일 회장님과 임원진, 전국의 이사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영화홍보를 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깊어가는 이 가을, 우리 병원을 찾아주는 고객들에게 영화〈마음이...〉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동물사랑의 교감을 나누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고객의 저변이 확대되는 도미노 현상이 일게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우리의 주인공 '달이'가 사람이 아닌 동물로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사상초유의 톱뉴스로 대서특필되는 즐거운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